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담는다”

- 설계공모 당선작 ‘지혜의 풍경’ 바탕으로 설계 착수 -
- 문화·건축·역사 등 전문가로 ‘특별자문회의’ 구성, 정체성·상징성 보완 -
- 국격에 맞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그간 진행되어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마무리하고 건축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설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품격 높은 건축물로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총 17개 작품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 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최종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작은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 축에 순응한 공간구성, 전통적인 ‘채와 마당’의 배치를 통한 한국적 풍경 구현,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성과 함께 한편으로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로운 구성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당선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계공모 홈페이지 참조(<https://president-compe.kr>)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방향에 대해 그간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으며, 그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

고, 탈권위와 국민과의 소통 등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청와대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후속 설계과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 운영과 지속적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설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앞으로 국민,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격에 맞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설계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책임자	과 장	김주식 (044-200-3356)
		담당자	서기관	김동기 (044-200-3476)



<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 >



북측의 원수산과 전면의 시민공간을 자연스럽게 잇고, 자연 지형의 축에 '채와 마당'의 전통 공간개념을 적용하여 자연과 조화된 한국적 배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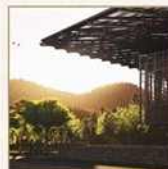
< 국가의 뜰(야외 행사장)에서 바라본 집무실 > *의장대 사열 예시



01
창덕궁을 담은 지형에 순응한 배치



02
깊은 처마와 단청의 색채가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품격



03
한국의 정원을 담은 공간



□ 당선업체 현황

구분	공동대표자	공동응모자1	공동응모자2
업체명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윤생동건축사사무소(주)

※ 대표사 개요

- (대표사)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매출순위) 국내 건축설계 매출액 약 2,630억, 직원 1,550명
- (주요인력) 윤세한(대표이사&CEO)·김태만(대표이사&CDO)·이상인(대표이사&CMO)

< 주요 작품 >

행복도시중심행정타운MP	국회소통관	국립중앙의료원
		

□ 설계공모 순위

순 위	작 품 명 (대표사)
당선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입상	2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 민의일경(民意一景)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3위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위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5위 공유풍경 Commonscape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